

 식품의약품안전처		<h1>보도자료</h1>			
보도일시	2021. 8. 11.(수) 15:00 이후		배포일자	2021. 8. 11.(수)	
담당과장	식품관리총괄과 최종동 (☎043-719-2051)		담당자	심 연 사무관 (☎043-719-2054)	

식약처장,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·방역관리 현장 점검

-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'사회적 거리두기 동참' 캠페인 실시 -

-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휴가철 이용자가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'사회적 거리두기 동참'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8월 11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(부산방향, 경기 안성시 소재)를 현장 점검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.
- 휴게소 내 음식점 영업자 대상으로는 ▲위생적 취급기준 등 「식품위생법」 준수 여부 ▲출입자 증상 확인과 명부작성 ▲주기적 환기·소독 ▲테이블 간 거리두기 ▲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.
-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는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하는 '사회적 거리두기 동참' 캠페인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시했습니다.
 - 김강립 처장은 국민들에게 인쇄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▲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하기 ▲유증상 시 즉시 코로나 검사 받기 ▲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피하기 등을 안내했습니다.
- 김강립 처장은 “영업자들께서는 안전한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을 위해 환기·소독 철저, 출입자 증상 확인, 명부작성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감염 차단에 힘써 달라”며 “더운 여름철을

맞아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”고 당부했습니다.

○ 또한 “국민들께서도 이번 광복절 연휴 기간에는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, 출·입구 이동 동선 준수, 출입자 명부 작성, 거리두기, 오래 머무르지 않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”고 말했습니다.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·카페 등 소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등 현 코로나19 상황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